

## 지도자는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동기 부여할 것인가(3)

### - 느헤미야에 배우는 목회리더십

릭 워렌/ 새들백교회 목사

#### 원리3: 사실을 파악하라

느헤미야 2장 12~16절에서 우리는 느헤미야의 조사원들(research party)이 실제로 나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살펴본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한밤 승마여행(midnight ride)이다. 12절에서 그는 말한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 일을 내가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두어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소화되었더라.” 그는 계속해서 어떻게 그가 한밤에 나가 성벽을 둘러보고 왔는지, 사실은 시찰하고 왔는지 이야기한다. 그는 한밤중에 직접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있다. 그는 오직 소수의 무리와만 동행한다. 그는 분명히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원치 않았다.

모든 훌륭한 지도자는 여기서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안다. 그는 속제를 하고 있다. 자신의 현장을 점검하는 것이다. 이것은 지도력이 지닌 고독한 부분이며, 매력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즉 영원히 그 누구도 함께 얘기 들어줄 수 없는 부분이다. 그가 준비하고, 상황을 점검하며, 사실들을 파악해야 한다. 14절은 무너져 내린 돌덩이가 너무 많아 심지어 그는 말에서 내려 걸어가기까지 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쯤에서 그가 세운 기획안(project)의 규모는 침몰하기 시작하고, 그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군. 어찌자고 내가 이 일을 하겠다고 나섰던 걸까? 난 내 인생에서 결코 어떤 것도 세워본(built) 적이 없는 데 말야”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16절은 말한다.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귀인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고하지 아니하다가.” 왜 그는 이 현장 답사에 대해 그렇게도 은밀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계획이 출발점에서 나아가기도 전에 진흙탕에 빠져 꼼짝달싹 못하게 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90년 동안이나 부정적 견해가 팽배해 있었고 그는 아직 모든 사실들을 파악하지 못했다. 훌륭한 생각을 발전시켜나가는 것과 사장시켜 버리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쉽겠는가? 당신은 부정적인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람들보다 더욱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경향이 있음을 주목해본 적이 있는가? 느헤미야는 모든 사실들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기에 자신이 하려는 일을 공개하기 전에 먼저 사실을 파악하려 한다고 말한다.

지도자는 그들의 계획이 빨리 무산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잠언 23장 23절은“진리(the facts)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고 말씀하며, 잠언 18장 13절은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라고 말씀한다. 잠언 14장 15절은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그 행동을 삼가느니라”라고 말씀한다. 좋은 지도자는 직접 조사한다.

우리는 이곳 새들백에 13곳의 자매 교회가 있다. 모든 목회자들을 임명하기 전에 우리는

그들에게 자신들이 교회를 개척하려는 지역에 대한 인구 통계학적인 연구를 하도록 요청했다. 나는 새들백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6개월 동안 지역, 인구조사 통계학, 관련 도서(writing-확인 필요), 주민들과의 대화, 정보수집에 대한 연구만 하면서 보냈다. 이 곳으로 옮겨오기 전에 새들백 벨리의 거리들을 거의 모두 암기했다. 나는 세 달 동안 도서관에서 이 지역에 대한 인구조사 통계학을 공부하면서 보냈다. 이 곳으로 오기 전, 지역의 모든 목회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 곳의 상황에 대하여 물어보았다. 그리고 1979년 10월 비행기를 타고 이곳에 도착해 열흘간의 조사를 했으며, 지역을 답사했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말하지 않았다. 우리는 단지 조사하는 일만을 했다.

느헤미야는 그의 반대자들을 파악했고,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으며, 모든 사실들을 수집했다. 이제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모든 계획을 투명하게 드러낼 준비가 돼 있다. “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17절). ‘후에’란 단어 위에 동그라미를 쳐라. 이제 그는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네 번째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돼 있다. (계속)

편집자의 말/ 이 글은 목회전문월간지 [목회와신학] 2003년 2월호 184-193페이지에 실린 것으로서 [목회와신학]의 허락을 받아 게재합니다

\* 목회와신학 홈페이지 - <http://www.durano.com/moksin>